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선보이는 애트모스

앞면과 옆면 그리고 뒷면, 모든 측면에서 보아도 매혹적인 실루엣과 완벽한 균형을 선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애트모스 트랜스파라트 클락은 반사 방지 처리된 투명한 글래스를 통해 심플한 매력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는 제품입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의 다이얼, 미니멀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숫자와 핸즈, 새틴 처리된 로둠 도금 받침대가 돋보입니다. 1928 년 엔지니어 장-레옹 휘테(Jean-Léon Reutter)가 개발한 간결하면서도 기발한 메커니즘을 장착한 애트모스 클락은 30 년대에 첫 선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트모스 클락은 반영구적으로 시간을 표시하며 고도로 정밀한 기술력이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반영구적 무브먼트

애트모스 클락의 메커니즘은 단 1 도의 온도 변화로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여 이틀 동안 클락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투명한 글래스를 통해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63 과 다양한 부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 캐비닛의 각 표면은 새롭게 반사 방지 처리를 더하여 아름다운 오브제를 찾는 애호가들에게 정교한 디테일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색채와 디자인의 조화

애트모스 트랜스파라트 클락은 12 개의 숫자가 돋보이는 새로운 글래스 소재의 다이얼로 선보입니다. 심플한 매력의 다이얼 위로 세련된 블랙 컬러의 숫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블랙 컬러의 커다란 핸즈 2 개가 시간을 표시합니다. 간결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원형 다이얼과 대조되는 느낌을 연출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고도로 정밀한 기술과 직사각형 속에 자리한 원형, 원형 속의 라인 형태의 정교한 디자인이 어우러진 하나의 클락이 대조적인 느낌, 상호 보완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랑 메종의 탁월한 노하우를 새롭게 입증하였습니다.



에트모스 트랑스파랑트의 반영구적인 무브먼트를 장착하여 기계공학적 특징과 고도의 정밀성을 보여줍니다. 환경 친화적인 에트모스 클락은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위치메이킹 노하우의 상징이자 시간을 초월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오브제를 사랑하는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입니다.

에트모스 트랑스파랑트

무브먼트: 기계식, 반영구적,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63, 수공 제작 및 조립, 217 개의 부품, 애플러 밸런스 휠

기능: 시/분

크기: 250mm x 185mm x 145mm

칼리버: 563

파워 리저브: 반영구적

다이얼: 글래스 위에 전사 처리한 숫자

핸즈: 폴리싱 마감 처리된 블랙 컬러

캐비닛: 반사 방지 처리로 투명한 효과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차세대 글래스

받침대: 폴리싱 및 새틴 처리한 스틸

레퍼런스: Q5135204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고요하고 평온한 빌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매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주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위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위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년 이래 1,200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위치메이커들 중 가장 뛰어난 위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